

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(안)

2025. 9.



I. 고교학점제 개요

1. 도입 배경

- 인공지능(AI) 혁명, 학령인구 감소 등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비하여, 모든 학생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**인재 양성 교육 필요**
- 입시 중심의 경직된 교육, 수직적 서열화를 벗어나 **학생 성장 중심의 유연하고 개별화된 교육, 수평적 다양화**를 지향하는 새로운 고교체제 도입 추진

2. 개념

-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·적성에 따라 과목 선택 후 이수 기준 도달 과목의 학점을 취득·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

※ (고교학점제 이전) 단위제, 204단위 → (고교학점제 이후) 학점제, 192학점

< 고교학점제 주요 요소 >

- ▶ (과목 선택) 학생이 진로·적성과 연계된 학업 계획을 수립하고, 학교는 학생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·운영 → 과목 선택 확대를 위해 학기제 운영
- ▶ (과목 이수 기준) 과목출석률(2/3이상), 학업성취율(40%이상) 동시 충족 시 학점 취득, 3년간 192학점 취득 시 졸업
- ▶ (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) 과목 수업 종료 후 최소한의 도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지도를 통해 책임교육 강화
 - ※ 학점 이수 기준 '미충족' 시 일정한 보충학습(예: 4학점 과목의 경우 20시간) 제공 후 '이수' 처리
- ▶ (내신 평가) 고등학교 내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성취평가(5단계, A~E)와 상대평가(1~5등급) 병기

3. 주요 경과

□ 도입 검토·결정 및 기본 방향, 일정 제시 (2016~2018)

- 「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」 수립('16.12.)
※ 고교학점제 도입 검토 시작
- 「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」 발표('17.11.)
※ 고교학점제 도입 결정
- 「고교교육 혁신방향」을 통한 고교학점제 추진 로드맵 제시('18.8.)
※ ('18~'21) 도입 기반 마련 → ('22~'24) 부분 도입 → ('25~) 전면 도입

□ 고교학점제 모델 육성 (2018~2020)

- 고교학점제 연구·선도학교 지정('18~)
- 「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사업」 계획 수립('20.1.)
※ 연구·선도학교 운영 지원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운영, 시도교육청 도입 기반 마련 등

□ 제도적 기반 조성 (2021~2022)

- 「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」*('21.2.) 및 「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계획」**('21.8.) 발표
* 학점제형 교육제도 설계(학점 이수 기준 등), 학점제 지원 체제 구축(공간 조성 등)
** ('22) 교원연수, 학교준비 → ('23~'24) 단계적 적용(공통과목 최성보 실시 등) → ('25~) 전면 적용
- 학점제 관련 「초·중등교육법」('21.9.) 및 동법 시행령('21.12.), 「2022 개정 교육과정」 고시('22.12.)

□ 고교학점제 단계적 도입 (2020~2023)

- 마이스터고('20~) / 특성화고('22~) / 일반고('23~)
※ 일반고 연도별 도입 비율 : ('21) 55.9% → ('22) 84% → ('23~) 100%(1,692개교) 운영
※ 과목선택제, 204단위→192학점(1학점당 17→16회) 감축 적용(미이수제 미적용)

□ 고교학점제 보완·점검 및 추가 계획 발표 (2022~2024)

- 「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」을 통한 학점제 보완 방안 발표('23.6.)
※ 온라인학교, 지원센터 등을 통한 과목 개설 지원, 진로·학업 설계 지도 강화 등
- 고교학점제 연구·준비학교 대상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('23~'24)
- 「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」 발표('23.12.)
※ △내신 9등급제→5등급제, △절대평가(A~E)와 상대평가(1~5등급) 병기 등
- 고교학점제 준비 상황 모니터링 및 점검('24)
- 「학점 이수 인정 기준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계획」 발표('24.9.)
※ 학생 상황을 고려한 학점 이수 인정 기준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세부 사항 등 안내

II. 성과 및 문제점

1. 그간의 성과

- (학생 선택권 강화) 학교에서 다양한 선택과목이 제공되고, 공동교육과정, 온라인학교 등을 통해서도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체계 구축
- 학생은 자신의 진로·학업 설계를 토대로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기회 확대
※ 교육과정별 선택과목 확대 ⇨ (2009) 76개 → (2015) 97개 → (2022) 137개
※ 고교학점제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(KICE, '22~'24) ⇨ ('22) 3.62 → ('23) 3.71 → ('24) 3.73
- (저성취 학생에 대한 교육적 관심 향상)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통해 성적 하위권 학생들에게 다양한 예방지도 및 보충지도 실시
※ '24년 운영 방법 ⇨ 대면지도(33.2%), 과제 부여(23%), 온라인 콘텐츠(13.1%), 기초 학력 보장 프로그램 연계(9%), 정서 지원 프로그램(5.3%), 학습 멘토링(5.3%) 등
※ '25년 1학기에 이수 기준 미도달한 학생 비율이 7.7%였으나, 학교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통해 미이수 학생 비율이 0.6%로 감소하였음
- (출결 상황 개선) 과목별 출석률이 학점 이수 기준으로 적용됨에 따라,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증가하는 등 출결 상황 개선
※ “올해부터 과목별 출석률이 적용됨으로써, 학생들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모든 수업 시간에 빠짐없이 출석하려는 태도를 보임”(현장 교사, '25)
- (학교 공간 혁신) 학점제 준비 과정에서 학점제형 공간을 조성*하여, 과목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방식의 수업 운영 가능
* 학교 공간을 유연화·복합화하고 동선을 효율화, 학생 공용 공간을 조성(일반고의 97%가 공간 조성 완료)

2. 문제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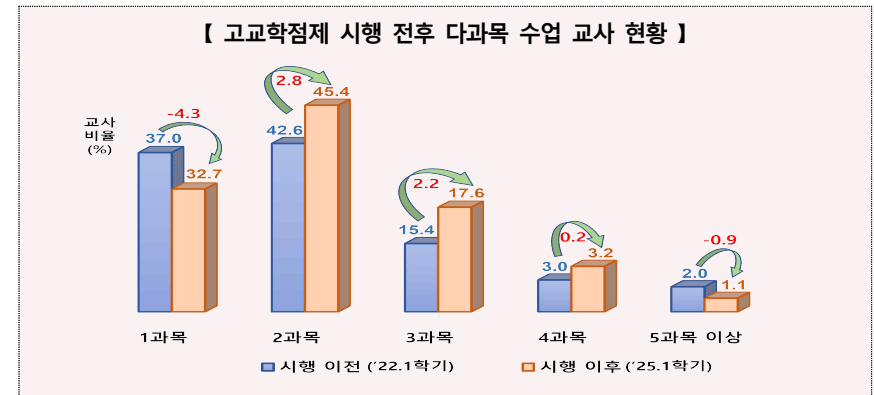
- ◆ 고교 내신 평가 방식, 과목 선택을 위한 정보 부족 등으로 학생들이 진로·적성보다 성적 유·불리를 중심으로 과목 선택
- ◆ 초·중학교부터 학습 결손이 누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교에만 책임교육을 강조하여 교사의 부담 가중, 형식적·편법 운영 등 발생
- ◆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등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교·강사 확보 부족

□ 학생들은 진로·학업 설계 부담

- (과목 선택) 고교 내신 평가 방식에 따라 학생들이 진로·적성보다 성적 유·불리를 중심으로 과목 선택
 - ※ 당초 공통과목은 상대평가 9등급을,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를 적용할 예정('21.2.)이었으나, 대부분의 과목에 절대 및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것으로 변경('23.12.)
- (정보 부족) 과목 선택을 위한 정보 및 새로운 대입제도에 따른 진학 정보 등이 부족하고, 진로를 조기에 결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 호소
 - ※ “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학입시를 고려한 과목 선택에 대한 압박감이 있다.”(고1 학생, '25)
- (성취율 도달 부담) 학점 이수 기준 미도달 시 낙인효과 및 학교 부적응 우려
 - ※ ('25년 1학기) 학업성취율만 미도달(6.1%) / 학업성취율&출석률 미도달(0.5%) / 출석률만 미도달(1.1%)
 - 학점 미이수에 따른 낙인효과가 발생하고, 학교생활 부적응을 유도한다는 비판 제기

□ 교사들의 높은 부담 및 현장 수용성 약화

- (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) 초·중학교부터 학습 결손이 누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교에만 책임교육을 강조한다는 비판 제기
 - 올해 학점 이수 기준과 연계하여 시행되면서 학생·학부모와의 민원 등 교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, 일부 학교에서 형식적으로 운영
 - 학업성취율 미도달 학생 수를 감축하기 위해, 평가 기준을 임의로 완화하거나 조정하려는 현장 사례 발생
 - ※ 일부 교사들은 수행평가 반영 비율 또는 기본 점수를 상향 조정하거나, 난이도가 낮은 지필평가 문항을 다수 출제(현장 의견, '25)
- (다과목 수업) 3과목 이상 다과목을 담당하는 교사가 늘어나 해당 교사의 수업 준비, 평가 문항 출제 등 업무 부담 증가
 - 또한, 학생 과목 선택 절차 운영 및 각종 증빙자료 구비 등 학점제 업무 담당 교사의 행정 업무도 가중



- (출결 관리) 변경된 나이스(NEIS) 출결 처리 방법이 복잡하여, 학교 내 학생 출결 처리와 관련한 교사의 업무 부담 가중
 - ※ 학점 이수 기준인 과목 출결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, 나이스 권한을 과목 담당 교사로 한정 부여함에 따라, 과목 교사의 업무 가중 및 담임교사와의 소통 혼란 발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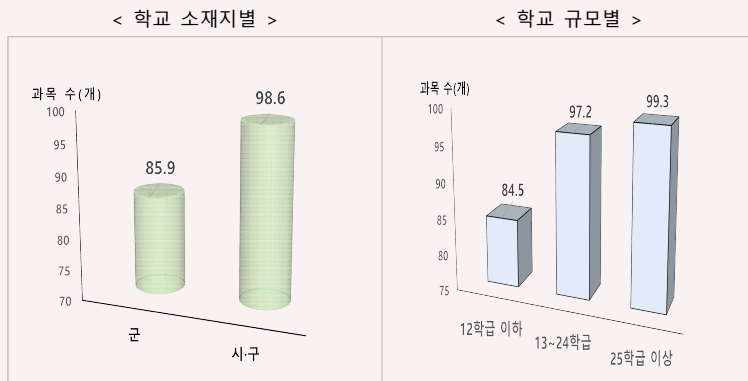
- (학생부 기재) 공통과목(7과목)의 학기 단위 분할 운영*으로 인해, 이전에 비해 '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'의 기재 분량 증가

* '국어, 수학, 영어, 한국사, 사회, 과학, 과학탐구실험' 과목은 학기 단위 분할 운영 (예시: 공통국어 → 공통국어1, 공통국어2)으로, 기재 분량 증가(기존 500자 → 1,000자)

□ 학점제 운영 여건 미흡 및 격차 심화

- (여건 미흡) 원활한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적정 교·강사 확보 부족으로 다양한 과목 개설 제한
- (과목 개설 격차) 학교의 소재지, 규모에 따라 편성·개설 과목 수의 격차 발생

【 '25년 일반고 신입생 소재지별, 학교 규모별 3개 학년 과목 편성 현황 】



※ 일반고 중 총 1,100개교 대상 조사 결과

※ 과목 편성 수와 실제 과목 개설 수는 학생 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⇒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성과를 살리되,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운영 개선 대책 필요

Ⅲ. 운영 개선 대책

《기본 방향》

- ◆ 고교학점제의 기초를 유지하며, '학생 지원 강화', '현장 수용성 제고', '운영 여건 개선 및 격차 해소'를 주요 내용으로 운영 개선 추진
- ◆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적정 교사 정원을 확보하고, 온라인학교, 공동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6년 교원 정원 긴급 확보 추진
- ◆ 교육과정 개정 사항인 학점 이수 기준 완화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

1. 학생 지원 강화

① 기초학력 보장 강화

- 초·중학교 단계부터 기초학력 보장 지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학습 결손 누적 예방

-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* 구축('25.12.), 학습지원 전담교원 증원, 1:1 대학생 온라인 멘토링,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 확대** 등 추진

* 기초학력 진단, 교수 학습자료 통합 제공, 학생의 학습 이력 관리, 학습 콘텐츠 추천·제공 등

** ('25) 5개 → ('27) 17개(예정)

- 기초학력 미달, 경제적·심리적 문제 등 학생의 복합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, 학생 개인별 다양한 원인에 따른 맞춤형 지원 강화('26~)

- 「학생맞춤통합지원법」 시행('26.3.~)에 따라 사업 간 연계·지원

② 진로·학업 설계 지원 강화

- 중학생의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 및 진로 탐색 기회 확대를 위해 진로 상담 교사용 **중3** 학생 대상 **맞춤형 수업·컨설팅 모델 개발·운영**(‘26~)
- 학생, 학부모에 대한 **충분한 정보 제공**
 - (단위학교) 진로전담교사를 중심으로 학교단위 진로·진학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**지원 체계*** 구축·운영(‘26~)
 - * 중앙 핵심교원 연수 → 시도 진로전담교사 연수 → 학교단위 전체 교원 대상 연수
 - (교육부·교육청) 진로·학업 설계 **중앙지원단**(450→600명)* 및 **시도 지원단**을 증원하여 고교생에게 충분한 **대면·비대면 상담 제공**(‘25.하~)
 - * 현직 고교 교사로 구성, 진로·진학·과목 선택·학습 방법과 관련한 종합적인 온라인 상담 제공 중(1,459건, ‘25.1월~8월), 추후 오프라인 상담 병행
 - (현장 소통 강화) 중앙·시도 지원센터 내 **안내 기능 강화**, 학점제 운영 성과 **공유회 개최**, 학생·학부모 대상 **설명회 지속 운영**(‘25.하~)
- 콘텐츠 개발·보급 및 학점제 지원 시스템 마련
 - **진로 미결정 학생**에게 특화된 진학 지도 **콘텐츠**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**선택과목 소개 동영상*** 개발·보급(‘26~)
 - * 각 과목별 관련 직업, 학과, 자격증 정보 등 포함
 - **진로정보망**(커리어넷)을 통해 **온라인 진로·진학 상담 운영** 및 **진로심리검사**(6종), **최신 직업·학과 정보** 등을 지속 확대 제공
- 교육청별로 제공 중인 진로 및 과목 선택 관련 안내 자료를 모든 교사·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는 **누리집**을 개발·운영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(‘26~)

③ 학점 이수 지원

- 2022 개정 교육과정에 **기초적 내용**을 배울 수 있도록 개발한 **과목***을 **온라인학교**에 개설하여 **희망하는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**(‘26~)
 - * ‘기본영어’, ‘기본수학’, 다만 교육청 여건에 따라 문해력 제고를 위한 과목은 ‘교육감 승인 과목’으로 개발·운영 가능(교육부, 교육감 승인 과목 개발 연수 지원, ‘26~)
- **장기간 병원 진료**를 받는 **학생**의 경우 **학점 이수 기준 미적용 가능**(‘25.7. 완료)
- 학사 일정 운영 과정 중 행사 실시 등으로 **과목별로 편차가 있는 출석률 산정 기준**을 과목마다 **동일하게 조정***(‘25. 2학기~)
 - * 실제 수업횟수의 2/3 이상 → 1학점당 수업량 16시수의 2/3 이상
- 정책연구를 거쳐 **‘미이수 학생을 위한 학점 추가 이수 지원 방안’ 수립**(~‘26.1.)

④ 학생 수행평가 부담 완화

- 수행평가의 **‘수업 중 실시 원칙’**을 철저히 점검하고, 학생의 **미래 역량 함양** 및 **평가 부담 완화**를 위한 개선안 마련(~‘25.하)
 - ※ 서·논술형 평가 및 지필평가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수행평가 최소 실시 비율 등 「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」 개정 추진

2. 현장 수용성 제고

①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유연화

- (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) 예방·보충지도 시수 감축 등 기존 지침을 **완화**하고, **교육감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학교별 자율적 운영**(‘25.하~)
 - ※ 다만,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시 보충지도는 반드시 포함하여 운영

<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기준 완화 방안(안) >

구분		주요 내용	
		현행	개선
예방·보충지도 시수 감축		▶ 1학점당 5시수	▶ 1학점당 3시수 이상
예방지도 인정 범위 확대	과목별	▶ 50%까지 인정 권장	▶ 보충지도를 포함하여 운영 ▶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교육감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학교에서 과목, 학생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 운영
정서지원 프로그램 인정 범위 확대	보충지도 시수의	▶ 25%까지 인정 권장	

- (출석률 미도달에 따른 추가학습) 100% 온라인 프로그램으로도 운영 가능하도록 완화('25.하~)

※ '온라인 보충과정'을 활용한 추가학습 대상자(출석률 미도달 학생) 관리 시스템 구축, 과목별 온라인 콘텐츠 확대 등(~'26)

② 출결 관리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 경감

- 나이스(NEIS) 수업 교시별 출결 처리 권한을 과목 담당 교사와 담임교사에게 동시 부여('25.9.)
- 공통과목의 '세부능력 및 특기사항' 기재를 1·2학기 과목 합산 최대 500자(현재 1,000자)로 변경('25.9.)
- 1학기 교과학습발달상황 '세부능력 및 특기사항' 마감 시한을 '학기말'에서 '학년말'로 변경('25.7. 완료)
- 교원, 입학사정관,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, 학생부 기재 및 대입전형 요소 개선안 마련 추진('25.하~)

③ 다과목 수업 및 학점제 업무 부담 경감

- 다과목 수업 교사 대상 역량 강화 지원('26~)
 - 신설 과목* 등 수업 준비에 부담이 있는 과목에 대한 교과 내용 및 교수 방법 연수 운영
 - * 「금융과 경제생활」, 「인공지능 기초」 등
- 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 편의성 제고를 위해 '수강 신청 프로그램' 기능 고도화 추진('26~)
 - ※ 주요 기능 ⇨ △과목 수강 신청 및 인공지능(AI)으로 구현되는 시간표 작성 기능
- 교·강사 인력풀 조성, 학점제 컨설팅 등 학교의 학점제 운영을 지원하는 '고교학점제 시도지원센터'를 연내 모든 시도로 확대 설치·운영(9개→17개)

3. 운영 여건 개선 및 격차 해소

① 교·강사 인력 확충

-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교원 정원 확보 추진
 - ※ 온라인학교, 공동교육과정 등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'26년 정원 긴급 확보 추진
-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학교가 필요한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지원('26~)
 - ※ 읍면·도서 지역 소재 학교 및 소규모학교 등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시행
- 대학 시간제 강사 등이 고교 수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교-대학 간 협력 강화('26~)

② 온라인학교 시도 간 교류 추진

- 신산업 분야 등 일부 개설 과목에 대해 시도 간 교차 수강 허용*('26~)
 - * 시도 여건 등에 맞춰 참여 시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
- 대학 교원, 연구원, 산업계 전문가 등으로 강사 풀을 구성·공유하여 다양한 강좌 개설 지원
 - ※ 대도시 거주 강사가 장거리 이동 없이 농산어촌 거주 지역 학생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거주지 관할 온라인학교 시설 활용하도록 조치

③ 공동교육과정·학교 밖 교육 확대

- 일반고 학생 대상 전문교과 과목 및 특성화고 학생 대상 보통교과 과목 개설 확대(읍면지역 등은 온라인으로 수업)
- 전문대학 및 지역 거점 국립대 참여를 우선 유도하여 고교-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* 개설 확대('26~)
 - * 대학이 전문성에 기반하여 제공하는 교육 내용 중 고교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을 선별하여 새롭게 구성한 과목 → 과목 이수 시 고교 학점 및 해당 대학 학점 인정
 - ※ '25년 6개 시도, 13개 대학(총 26개 과목)에서 운영 중

④ 고교학점제 협의체,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

- 현장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 협의체 및 교사·학생·학부모별 모니터링단을 운영('25.하~)하여,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과제 발굴 및 필요한 제도 개선 추진

IV. 추가 논의 과제

- 학점 이수 기준 완화
 - 교육과정 개정 사항이므로, 국가교육위원회와 논의(~'26.2.)
 - ※ 관련 법령 「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제2호: 제12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
 -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보장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 달성과 함께 현장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'공통과목은 현행 유지하되, 선택과목의 경우 출석률만 적용'하는 방안 제안
 - 다만, 이와 관련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교육부 자문위원회에서 권고한 '공통·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 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'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
 - ※ 창의적 체험활동은 이수·미이수 대상에서 제외
- 추가 제도 보완 사항
 - 향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고교학점제 관련 제도 보완 사항을 포함하여 고교교육 개선 논의